

# 구광모호 7년... 적재적소 인재 배치, ABC 중심 '미래준비'

(AI·바이오·클린테크)

## LG그룹, 2024 정기 임원인사

구광모 회장 7년차를 맞는 LG그룹이 '미래 준비'와 '경영 안정'에 방점을 둔 2025년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올해 조직은 전사 중·장기 전략인 '2030 미래비전' 가속화를 중심으로 개편됐다. '도전적 목표'를 세워 변화와 혁신에 속도를 높일 것을 강조한 구 회장의 경영 철학이 반영됐다.

(주)LG와 각 계열사는 21일 이사회를 열고 내년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는 미래 성장을 위해 변화 속도를 높인다는 기조 아래 ABC(AI·바이오·클린테크)를 중심으로 '미래 준비'를 철저히 하고, 각 분야에서 역량과 성과를 입증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변화를 노리는데 중점을 뒀다.

### ◆ABC 중심 미래 준비...R&D 임원 지속 확대

LG는 차별화된 미래 사업 역량 확보와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체 신규 임원 중 23%(28명)를 ABC(AI·바이오·클린테크) 분야에서 발탁했다. 특히 AI 분야에서 글로벌 수준의 연구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80년대생인 LG AI연구원 이문태 수석연구위원(상무), 이진식 수석연구위원(상무), LG유플러스 조현철 상무 등 3명을 신규 선임했다. LG는 미래 사업 역량 확보라는 중장기적관점에서 연구개발(R&D) 분야 차세대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다. 신규 임원 21명을 포함해 그룹 연구개발 임원 수는 218명으로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홍범식  
LG유플러스 신임 사장



현신균  
LG CNS 대표이사 사장



김영락  
LG전자 한국영업본부장 사장

LG전자, 4개 사업본부 명칭 재편  
유플러스 대표이사에 홍범식 선임  
구광모회장 영입 대표적 인물 꼽혀

CNS 대표이사 현신균, 사장 승진  
LG엔솔 부사장 한웅재, 전무 이한신

고객가치·영업·마케팅 등 분야에서  
여성 7명 선임... 女 임원 총 65명

### ◆4개 사업본부 명칭 재편 "AI 사업 주도"

LG전자는 H&A(생활가전)·HE(홈엔터테인먼트)·VS(차량 부품 사업)·BS(B2B 사업부) 등 기존 4개 사업본부를 ▲HS(홈어플라이언스 솔루션) ▲MS(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솔루션) ▲VS(차량 솔루션) ▲ES(에코 솔루션) 사업본부로 각각의 명칭을 재편했다.

HS사업본부는 플랫폼사업센터를 본부 직속으로 두고, AI홈 솔루션 사업을 주도한다. 기존 H&A사업본부장 류재철 사장이 이어서 HS사업본부장

을 맡는다. MS사업본부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통합 운영한다. 기존 BS사업본부에서 IT등 사업부를 이관 받아 TV 사업과 통합 운영하며 하드웨어와 플랫폼에 시너지를 낸다.

LG전자는 HVAC 사업을 기존 H&A사업본부에서 분리한 ES사업본부를 신설했다. 기업간거래(B2B)의 중심인 냉난방공조(HVAC) 사업을 본격 확대하기 위해서다. 매출액 1조원 이상을 목표로 유니콘 사업으로 성장시킨다는 목표다.

### ◆LG유플 수장 교체... LG CNS 대표 이사 승진

LG유플러스는 4년만에 홍범식(주)LG 경영전략부문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홍 사장은 2019년 LG에 합류한 후 경영전략부문장으로 그룹의 경영전략을 총괄해왔다. 구광모 LG 회장이 취임 후 영입한 대표적 인물이다. 홍 사장은 LG에서 그룹 차원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인수합병(M&A)에 적극적으로 나서 사업 경쟁

력 강화에 힘을 쏟았다. LG유플러스는 기존 통신 본업을 강화하는 한편,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신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LG유플러스 SMS 고객 경험 혁신을 통한 인공지능전환(AI) 컴퍼니로 도약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LG CNS는 현 대표이사인 현신균 대표이사를 사장으로 승진시켰다. IT 전문가인 현 사장은 취임 후 4년 연속 사상 최고 실적을 경신하며 LG CNS의 성장을 이끌었다는 평을 받는다. 그는 2017년 말 LG CNS에 합류해 D&A 사업부장, CTO 등을 맡았으며, 2010년부터 2017년까지는 LG디스플레이에서 업무혁신 그룹장을 역임했다. 이에 앞서, AT커니, UN(국제연합), 액센츄어 등에서 글로벌 혁신 전문가로 활동하기도 했다.

### ◆女임원 7명 신규 선임...전체 65명 '역대 최대'

LG는 성별, 나이, 출신에 상관없이 실력과 전문성으로 인재를 중용하는 기조를 지속하며 리더십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 고객가치, 영업, 재무, 마케팅, 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여성 임원 7명을 신규 선임했다. LG 내 여성 임원 수는 2018년 29명에서 역대 최다인 65명으로 늘었다. 이와함께 LG 내 80년대생 임원 수도 모두 17명으로 5년간 3배 증가했다. 이는 경쟁력 있는 젊은 인재들에게 성장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와 환경을 제공해 그룹 내 변화 속도를 한층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 SK하이닉스

### '또 세계 최고층' 321단 낸드 양산 내년 상반기 공급

SK하이닉스가 세계 최고층 4D 낸드플래시를 양산해 내년 상반기부터 고객사에 공급한다.

SK하이닉스는 321단 1Tb TLC(Trip Level Cell·사진) 4D 낸드플래시를 본격 양산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SK하이닉스는 "당사는 2023년 6월에 직전 세대 최고층 낸드인 238단 제품을 양산해 시장에 공급해 왔고, 이번에 300단을 넘어서는 낸드도 가장 먼저 선보이며 기술 한계를 돌파했다"며, "내년 상반기부터 321단 제품을 고객사에 공급해 시장 요구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321단 제품은 기존 세대 대비 데이터 전송 속도는 12%, 읽기 성능은 13% 향상됐다.

또, 데이터 읽기 전력 효율도 10% 이상 높아졌다. SK하이닉스는 321단 낸드로 AI항 저전력 고성능 신규 시장에도 적극 대응해 활용 범위를 점차 넓혀갈 계획이다.

낸드플래시는 한 개의 셀(Cell)에 몇 개의 정보(비트)를 저장하느냐에 따라 SLC(Single Level Cell, 1개)-MLC(Multi Level Cell, 2개)-TLC(Triple Level Cell, 3개)-QLC(Quadruple Level Cell, 4개)-PLC(Penta Level Cell, 5개) 등으로 규격이 나뉜다.

회사 기술진은 이전 세대인 238단 낸드의 개발 플랫폼을 321단에도 적용해 공정 변화를 최소화함으로써 이전 세대보다 생산성을 59% 향상시켰다.

/김서현 기자 seoh@

>> 1면 '디지털화폐 CBDC...'서 계속

### "다중 CBDC 플랫폼 등 외국 송금증가 대비를"

외국인 노동자를 돌봄서비스에 활용하지 않을 경우 20년 뒤 경제적 손실이 최대 77조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전날 서울시는 가사관리사에 이어 마을버스에까지 외국인 인력을 채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많은 영역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추진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 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국가간 송금시 거치게 되는 기존 결제 인프라 스위프트(SWIFT)와 여러 환거래은행 중심의 네트워크는 소비자에게 높은 수수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들의 CBDC를 연결하는 다중 CBD 플랫폼을 마련,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 송금이 늘어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한전, 사우디서 4조 '잭팟'... 가스복합사업 2건 수주

### 루마1·나이리아1 건설·운영 낙찰 25년간 전력판매 매출 4조 전망

한국전력이 사우디의 대규모 가스복합 2개 사업을 연속 수주했다. 25년간 전력 판매 매출이 약 4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21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사우디 전력조달청(SPPC)이 국제입찰로 발주한 사우디 루마1, 나이리아1 가스복합 발전소 건설·운영 사업 낙찰자로 선정, 전력판매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앞서 한전은 사우디 전력조달청이 발주한 Round 5 Sadawi 태양광 사업과 미국 괌 전력청 발주 ESS 연계 태양



한국전력 본사. /한국전력

광 사업을 수주했다. 올해 들어 세 번째 국제 입찰사업 수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 특히, 중동에서 한전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평가다.

이번에 수주한 사우디 루마1, 나이리아1 사업은 각 1.9기가와트(GW) 규모의 복합화력 발전소를 2028년까지 건설, 향후 25년간 생산된 전력 전량을 사우디 전력조달청에 판매하는 사업이다. 발전소가 들어설 곳은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각각 북동쪽 80km, 470km에 위치한다.

한전은 사우디 전력공사(SEC), 사우디 최대 민자발전사(ACWA Power)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바라카 원전 사업 이후 최대 규모의 발전사업을 수주했다.

이 사업을 통해 지분 매출 약 4조원

(약 30억달러)의 해외 매출이 기대된다. 또 발전소 건설공사는 두산에너지빌리티가 참여해 약 2조원의 해외 동반수출도 이뤄질 전망이다.

한전은 사우디에서 2009년 1.2GW급 라빅 중유화력 발전사업을 수주해 운영 중이며, 2022년에는 사우디 아람코에서 발주한 317메가와트(MW) 자푸라 열병합 발전사업을 수주해 건설 중이다. 최근 수주한 Sadawi 태양광 발전사업과 이번 가스복합 사업을 추가로 수주해, 사우디 시장에서 한전의 입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동지역 시장 내 사업 확대가 기대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올해 민생예산 109조 중 95조 집행... "체감경기 개선 노력"

### 기재부 '재정집행 점검회의' "취약계층·지역경제 활력 위해 복지·일자리·SOC 중점 관리"

정부가 올해 민생예산 109조 원 가운데, 1~10월 누적기준 85%가 넘는 95조 원을 집행했다고 21일 밝혔다. 관련 예산은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복지 지

원 등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안상열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관계부처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들과 집행실적을 논의했다. 민생예산 등 중점 관리대상 사업 집행실적을 비롯해 공공기관·민간투자 집행실적 등이 의제에 올랐다.

안 재정관리관은 "정부는 취약계층 부담완화와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약자복지·일자리 지원·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또 "10월 말 기준 중점관리대상 사업 예산(109조8000억 원)의 86.5%인 95조 원을 집행하는 등 원활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